

2019
winter
vol.26

겨울호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M A G A Z I N E

CGNTV

목차

신규

Contents

- 2 미국 빈민들의 이웃이 된 한국인 목사 -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
- 4 새해엔, '공동체성경읽기'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 6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 <붓소행섭 시즌2>

2019 결산

Special

- 8 키워드로 본 2019 CGNTV 콘텐츠
- 10 2019 유튜브 핵심 콘텐츠
- 12 CGNTV가 만난 한 영혼

선교지의 아침

Mission

- 16 선교, 다시 물어셔도 '예스!' - 우간다 김정윤 선교사

국내뉴스 / 해외뉴스

News

- 18 국내
- 20 해외
- 22 편성표
- 24 에필로그 - 안양제일교회 최원준 목사



COVER STORY

홍대 거리에 울려 퍼지는 감동과 은혜. 거리의 전도자 '조셉붓소'의 버스킹워십.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22일(통권 제26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김 란, 추정현, 임예은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추정현, 박민수,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미국 빈민들의 이웃이 된 한국인 목사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

CGNTV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난한 자들의 이웃으로 사는 한 사람을 조명했다.
 미국 흑인 빈민가, 필라델피아 노스센트럴에서
 사역 중인 이태후 목사다.
 자신을 '동네 목사'라 칭하며,
 지난 16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곁을 지킨 사람.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은 부르심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변화들을 보여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되묻는다.

2007년 미국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지역 뉴스 섹션에, '동양인 목사, 거리에서 관용을 가르치다'라는 뉴스가 게재됐다. 이태후 목사의 이야기였다. 노스센트럴에 살기로 한 동양인 목사는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곳은 그 지역 목사들조차 살지 않는 극빈층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를 통한 지역과 사람들의 변화는 더욱 눈에 띄만한 대목이었다. 노스센트럴은 주민의 94%가 흑인이고, 절반 가까이 절대빈곤층이다. 낮에도 총소리, 범인을 쫓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악명 높은 우범지역이고, 밤이면 마약환자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목사는 분명한 부르심에 따라 주저 없이 이곳에 입성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6년여간 뉴욕 한인교회를 섬겼던 그는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 노스센트럴 행을 결정하게 됐다. 말씀을 통한 분명한 부르심이었다. 친구 목사에게 교회 수련회 설교를 부탁받고 준비할 때였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35~36절이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는 말씀을 보던 중,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계속 되묻게 됐다. 그때 그는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사역이기보다 그저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랐던 이 목사는 거리를 청소하는 일상으로 그곳 생활을 시작했다. 집집마다 화분을 놓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 주민들도 하나 둘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온 동네 화단에 꽃이 피기도 했다. 또 새해 첫날, 알코올 중독인 한 남성을 위해 기도해준 것을 계기로, "기도해달라"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가기 시작했다.

여름이면 바비큐 파티도 하고, 겨울이면 코트를 기증받아 나눠주는 등 자칭 '동네 목사'로 늘 주민들의 필요에 주목했던 이 목사. 2006년, 그는 방학이 되면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동네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 앞 골목을 막아 여름캠프를 열었다. 아이들은 두 달여간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성경공부하고 찬송도 부르며 즐겁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또 지역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배를 곯지 않아도 됐다.

매년 캠프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꿈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두 달여 캠프가 끝나면, 찬양이 듣고 싶다며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생겼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이 목사는 목회자의 꿈을 꾸기 전, "내가 과연 미학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자문했다. 그는 미학을 좋아했지만 그 마음까

지 들진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이태후 목사'가 됐다.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에서, 그것도 소외된 빈민들을 섬기고 있는 동양인 목사. 그의 섬김이 낳은 생명력 있는 변화들. CGNTV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에서 미국 언론도 주목한 그의 헌신과 그 감동을 만나볼 수 있다.



■ 방송일시
 CGNTV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새해엔, ‘공동체성경읽기’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성경읽기를 돕는 가이드 콘텐츠가 넘쳐난다. 여러 디자인과 콘셉트의 성경, 새로운 기능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하다. 하지만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큰 숙제다. 이에 CGNTV에서는 신규 기획 프로그램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와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를 제작해 효과적인 성경읽기의 대안을 제시한다. 새해 1월 첫 선을 보일 두 프로그램. 성경통독,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함께 성경 읽는, 기업, 학교, 교회... 생동감 있는 이야기 & 현장들”



▲1편 출연자 빌황 대표



▲3편 출연자 정진호 대표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와 공동체성경읽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 간의 토크 프로그램이다. 5명의 게스트들이 출연한다.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빌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김춘호 명예총장,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정진호 대표, 한동대학교 강신익 전 행정부총장, 덕호교회 강만원 목사가 그 주인공. 녹화현장에서 만난 그들은, 굴지의 기업, 대학, 교회인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이재훈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전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것, 또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1편의 주인공이자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한 빌황 대표는 저명한 투자가답게 “성경읽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체성경읽기’가 그가 답한 전략 중 하나. 그가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드라마 바이블’은 100여 명의 배우 및 성우들이 4년여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했다. 실감나는 낭독은 물론 적절한 효과음도 삽입돼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 더욱이 작업에 참가한 배우 및 성우들이 출연료 없이 참여해 은혜를 더했다. 심지어 이것이 조건인 배우도 있었다.

‘드라마 바이블’은 공동체성경읽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미국 풀러신학교에서도 현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1편 방송분을 보면, 낙도 오지 교회 및 가정 교회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편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정진호 대표 편에서는 회사 내 성경읽기를 사모하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세워가는 이들의 이야기. 효과적인 성경읽기의 전략을 담은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는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첫 방송된다.

- ▶ 2020년 1월 3일 첫 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 1편 G&M / 아르케고스캐피탈 빌황 대표
- 2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김춘호 명예총장
- 3편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정진호 대표
- 4편 한동대학교 강신익 전 행정부총장
- 5편 덕호교회 강만원 목사



“1년 1독, 보고 듣는 성경 읽기의 시작”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는 2020년 1월 1일 첫 방송되며, 총 365편을 제작 진행 중이다. 매일 20분씩 함께하면, 한 해 동안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 텍스트는 <공동체성경읽기>에 활용되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이다. 생동감 있는 낭독에 삽화 및 샌드 아트, 성경 자료 등을 삽입해 말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회자, 신학자를 통해 먼저 그날 읽을 본문 배경이 소개되고, 15분 성경 통독 후 시편을 통한 기도로 마무리된다.

- ▶ 2020년 1월 1일 첫 방송
- 월-토 오전 6시 40분(추후 방송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일 오전 6시 20분





<붓소헨섭> 채널 바로가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붓소헨섭 시즌 2>

지난 11월 1일 유튜브 ‘붓소헨섭’ 채널을 통해 <붓소헨섭 시즌 2>가 첫 공개됐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의욕적으로 거리에 나선 조셉 붓소. 여전히 거리의 반응은 날씨만큼이나 냉랭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한 영혼을 위해 조셉과 제작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번 예비된 한 영혼을 만났다.

<붓소헨섭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그 감격의 순간을 유튜브로 전한다.



#새로운도전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즌 1을 마치고 조셉은 말씀 훈련을 받았다. 시즌 1에서 느낀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조셉에게 시즌 2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아직까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죠.”

시즌 1을 마치고 쏟아졌던 칭찬과 호평에도 조셉은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았다. 더 나은 전도자가 되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 이는 제작진도 마찬가지였다.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동역자를 모집하고, 채널을 독립 운영하는 등 복음을 더 널리 견고하게 전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함께 #만드는 #콘텐츠 #그리고 #예배

<붓소헨섭>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도 콘텐츠다. 구독자들이 댓글로 계속해서 요청했던 ‘버스킹워십’을 지난 11월 2일 홍대에서 진행했다. 버스킹워십을 통해 조셉과 출연진, 제

작진 뿐만 아니라 구독자, 더 나아가 거리의 시민까지도 콘텐츠의 구성원이 됐다.

<붓소헨섭>의 구독자 장효정 씨는 버스킹워십을 위해 열두 살 딸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서부터 홍대까지 왔다. 조셉의 전도 모습과 찬양에 은혜를 받은 그는 유튜브로 공개되는 <붓소헨섭>을 주변과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 버스킹워십 내내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던 청년 이예찬 씨는 “<붓소헨섭> 채널을 통해 언젠가부터 잃었던 찬양의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는 <붓소헨섭>을 통해 닫힌 마음이 열렸던 자신과 같이 더 많은 이들이 조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축복했다.



#유튜브에 #부는 #복음의바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필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시즌 2를 앞두고 조셉은 당당하게 선포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유튜브 ‘붓소헨섭’ 채널에 업로드 되는 <붓소헨섭 시즌 2>는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한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더 놀라운 일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YouTube 에서 “붓소헨섭”을 검색하세요



‘가정, 도전, 믿음’ 키워드로 본 2019 CGNTV 콘텐츠

CGNTV는 2019년 한 해, 국내외 시청자들의 영적 유익을 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며 성경적이고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놓았고, 폭넓은 주제와 다양한 장르로 ‘새로운 도전’들을 이어갔다. 더불어 ‘믿음의 유산’을 되짚어보는 일도 잊지 않았다. 2019년 CGNTV가 남긴 의미 있는 영적 콘텐츠들. 키워드 중심으로 돌아본다.

#1. 가정의 회복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가야, 엄마야〉

〈싱글벙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가야, 엄마야〉, 〈싱글벙글 : 홀로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

CGNTV는 2019년 ‘가정의 회복’에 주목했다. 일명 ‘아빠가’로 소개됐던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가 그 대표 주자였다. 가정예배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길라잡이 편’과 ‘실천 편’으로 구분돼 가정예배에 관해 상세하게 다뤘다. 특히 ‘실천 편’은 스튜디오와 실제 세 가정을 화상으로 연결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했다.

가정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아가야, 엄마야〉는 전국 640여 개 미혼모 가정을 돕고 있는 박대원 목사, 서지형 사모의 사역 이야기를 담았다. 추석특집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 〈싱글벙글 : 홀로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은 남편을 잃은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해나가는 싱글맘들의 모습을 그렸다. 이 두 다큐멘터리는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2. 새로운 도전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떠나보면 알게 되는 여행의 이유〉,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2019년엔 CGNTV의 ‘새로운 도전’도 눈에 띄었다. 연초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스포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다. LA 다저스 투수 클레이튼 커쇼, SK 와이번스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떠나보면 알게 되는 여행의 이유〉

〈목사들의 복수〉

트레이 힐만 전 감독,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위원 등이 출연해 다음세대를 위한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을 말했다.

〈떠나보면 알게 되는 여행의 이유〉도 제작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배우 김인권, 가수 박지현, 이용규 선교사 등 8명의 유명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접 계획한 여행을 떠났다.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고, 출연자들이 찾아가는 ‘여행의 이유’도 만나볼 수 있었다. 복음주의 목사들의 연합기관 ‘TGC 코리아’와 공동기획한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는 기존의 대담이나 정형화된 토크쇼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대화로 목사들의 삶과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했다. 크리스천들의 신앙적 고민을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도 음악 전문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김태우, 이진아 등 실력 있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출연하며 매주 토요일 밤을 달콤하게 수놓았다.

#3. 믿음의 유산

〈낮은 곳에서 피는 봄〉,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믿음의 유산’을 돌아보는 뜻깊은 프로그램들도 제작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은 국내외의 기독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믿음의 행적을 조명했다. 1919년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투옥됐던 기독교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히와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다루었다. 배우 김혜자가 내레이션을 맡아 감동을 더했다.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가들에 담긴 신앙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했다. 배우 장광, 서태화, 추상미, 아나운서 최윤영 등이 스토리텔러로 나서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전하고, 다양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그 마음을 담아 곡들을 부르며 은혜를 더했다.

■ 위 프로그램들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피는 봄〉

2019 유튜브 핵심 콘텐츠

CGNTV는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 맞춤형 콘텐츠 채널인 “CGNTV SOON”채널을 지난 3월 개설했다. 예배와 강연 등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짧게 편집한 (3분 메시지), 찬양과 간증이 담긴 (컬처클립), 삶과 신앙의 노하우를 나누는 (하우스쿨) 등 다양하면서도 순수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최근 구독자수 4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CGNTV 유튜브 콘텐츠의 열매를 댓글로 살펴본다.

- 유튜브에서 CGNTV, CGNTV SOON을 검색하시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SOON 채널 바로가기



3분 메시지



이재훈 목사 <내가 약할 그때에>

↳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 <가장 큰 보화>

↳ “자기 의지로 죄를 이기는 만큼 자기 의가 들어선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엄청난 감동 받고 갑니다. 습관대로 살지 않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소서.



조세핀 김 교수 <지금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

↳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텐데, 왜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지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참 깊이 남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컬처클립



가수 이진아 편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 마음을 울리네요 음원 내주심 좋겠어요.
↳ 이진아 님 목소리와 연주로 찬양을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한 명의 예배자>

↳ “잃어버린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너무 감동입니다.



배우 한혜진 <우리가 있는 목적>

↳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명확한 사인을 주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 말씀으로 깨어있는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길 기도할게요!

하우스쿨



이정숙 총장 <기도는 이렇게>

↳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좋은 다스림입니다.



이재만 선교사 <그분의 계획>

↳ 되지도 않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이미 모든 걸 성취하셨고, 계획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 창조과학인데 마음을 울리는 영상 메시지는 처음이에요.



유은정 원장 <내가 발견한 금은보화>

↳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금은보화처럼 소중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 신랑이 이 영상 재밌다며 저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서로 미소지으며 시청하는데 어찌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CGNTV가 만난 한 영혼

CGNTV는 콘텐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선교지와 지역사회, 한국교회를 섬겼다.
2019년 CGNTV의 주요 사역을 정리했다.



성공보다 섬김으로 만난 한국교회

지난 2017년 봄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는 잊혀졌던 역사속 한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를 꺼내 한국교회에 큰 감동을 안겼다. 12만 명이 넘는 누적관객수를 기록하며 기독교 영화 역사를 다시 쓴 <서서평>은 극장 상영이 종료된 후에도 재관람 신청이 쇄도하는 등 호평을 얻었다.

이에 CGNTV는 2019년 <서서평> 관람을 원하는 교회 또는 단체를 위해 '찾아가는 상영회'를 진행했다. 교회의 규모나 거리에 관계 없이 관람을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찾아가 영화를 나누고 한국교회 섬김을 실천했다.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된 상영회

에는 다음세대 어린이들을 비롯한 17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섬김의 삶을 결단했으며, 경북의 '영덕교회'에서는 지역교회들이 연합해 총 200여 명의 성도들이 <서서평>을 관람했다.

올 한해, 총 65회의 '찾아가는 상영회'가 진행돼 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은혜를 누렸다. 또한 상영회 후에는 많은 성도들이 CGNTV 후원 약정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 동역하기로 작정했다. 앞으로도 CGNTV는 '찾아가는 상영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복음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웃리치로 더 멀리

CGNTV 직원 여름 아웃리치가 '성령과 함께 선교사로, 예배자로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 네팔, 인도, 케냐 등 해외 12개국 88명, 국내팀(함안, 청송) 17명, 총 105명의 직원들이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특히 2019년 아웃리치는 선교지역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해외 아웃리치 5개년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을 위한 아웃리치 지역을 선정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품고 나아갔다.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한국교회 섬김 3개년 프로젝트에 이어 진행된 올해 아웃리치를 통해 CGNTV는 선교사에게 위로를 전하고 선교 현장의 필요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웃리치 이후에도 목회 현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함안 동서비전교회 차량 후원을 위한 직원 바자회를 갖는 등 여름 아웃리치로 그치지 않고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또한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한 직원들은 CGNTV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인도 현지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섬긴 한 직원은 "무슬림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은 아이를 보며 큰 도전을 받았다"며 "인도와 그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사회 섬김으로 더 가까이

CGNTV는 2017년부터 본사가 위치한 서빙고동과 동행하기 위해 서빙고동 주민센터와 함께 지역을 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19년에는 서빙고동 지역 섬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중학교 미디어 워크숍, 생활아트 클래스, 서빙고동 사진관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한강중학교 미디어 워크숍을 통해 방송인을 꿈꾸고 있는 한강중학교 방송반 학생들에게 방송 기술을 나눴고, 촬영 실습과 스튜디오 방문 등의 실제적인 방송 제작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생활아트 클래스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제작을 통해, 예술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생활에서도 예술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예술로 선교하는 온누리아트비전 소속 현직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총 3회에 걸쳐 아크릴화 에코백 만들기를 진행했다. 아트비전 강사들은 15명의 주민들이 작품을 완성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서빙고동 사진관은 가족사진을 찍을만한 사진관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빙고동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CGNTV가 가진 촬영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가족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50여 가족에게 무료로 촬영한 사진을 선물했다. 앞으로도 CGNTV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섬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토에세이

마다가스카르 석양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랑을 배운다>, <천국의 땅 에티오피아>외 다수



선교, 다시 물으셔도 ‘예스!’

우간다 김정운 선교사



“TV, 32년 만에 봐요.”

우간다 김정운 선교사는 지난 2016년, 사역 30여 년 만에 TV를 처음 봤다. 우간다 1호 한인 선교사로, 긴 시간 그 땅의 ‘시스터 킴’으로만 살아온 그녀에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이었다. 한국어로 된 말씀이 24시간 넘쳐나는, CGNTV였다. 더욱이 모니터가 그녀의 병석 맞은편에 설치됐다. 그녀는 비포장도로를 복음 들고 수없이 운전하며 오간 탓에 허리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만난 김 선교사와 CGNTV. 김 선교사는 “CGNTV는 틀어놓기만 해도 위로가 됐다”고 고백했다. CGNTV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은 그녀의 사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간다 첫 한인 선교사

김정운 선교사는 1985년 아프리카 우간다로 향했다.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했던 간호학과 1학년 때의 고백이, 기도 중 그녀를 그 땅으로 인도했다. 김 선교사는 1973년 미국으로 건너가 서재필기념의료원에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일했다. 주일엔 교회 전도사였다.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스텝은 아프리카였다. 우간다 첫 한인 선교사였다.

두려운 면도 많았지만, 아프리카에 첫 발을 내딛은 김 선교사의 가슴 속은 평강으로 충만했다. 무려 인근에 사자가 돌아다니는 케냐 공항이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 평강으로 지금까지 산다”고 했다. 케냐에서 일주일 적응 기간을 보낸 뒤, 김 선교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던 때, 우간다에 입성했다. 눈앞에 펼쳐진 우간다의 모습은 딱 한국 전쟁 당사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사역 터전이었던 병원은 더욱 열악했다. 나병환자병원이었는데, 병원에 닭, 개, 염소까지 우글우글 거렸



1 2019 드림콘서트에서 간증하며 환하게 웃는 김정운 선교사(오른쪽 두 번째)
2 열악한 환경에서 간호인을 양성한 김정운 선교사의 사역 모습



다. 한 사람이 입원하면 가족에 짐승들까지 다 따라온 것이다. 약과 의료용품이 턱없이 부족해 환자들에게 붕대 대신 이불을 찢어 감아줘야 했다. 의료 전문 인력도 당연히 부족했다.

전도자 간호학교

“내가 직접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김 선교사에게 주신 마음이었다. 그녀는 곧 클루바라는 시골 마을 작은 방에 간호학교를 열었다. 교과서 한두 권을 구해 9명의 학생들과 시작했다. 그중 7명이 결혼한 남자였다. 학생들은 7시에 올 사람이 10시에 오기도 하고, 주사 하나를 주면 반만 환자에게 놓고 다른 반은 따로 챙겨가는 등 제멋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다. 칠판과 분필이 없어, 검게 칠한 나무에 식물 뿌리 말린 것으로 대신해 쓰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끓여 먹고, 배고프면 성경 읽고 찬송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다. 특히 그녀는 학생들에게 “간호사는 물론 전도자가 돼야 한다”고 가르쳤다.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전도도 함께 다녔다. ‘사랑과 봉사’가 교훈이었던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 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목표였다. 학교는 8년 뒤인 1993년 정식 학교로 등록됐고, 당시 졸업생 32명이 모두 믿음을 고백했다. 졸업생 중에는 현재 사역을 함께하는 학생도 있다.

우간다의 ‘시스터 킴’

김 선교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에 대해,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울고, 떼쓰며 도움을 구하는 자”라고 답했다. “내가 열심을 낼 땐 도리어 주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했다.

우간다에서는 김 선교사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시스터 킴’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직접 제안한 호칭이다. 스스로 ‘선교사’라고 칭하는 게 송구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는 귀한 직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래서 매순간 더 감사 찬송을 울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김 선교사는 현재 흉추 일부가 손상돼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다. 비포장도로를 무수히 오가야하는 등 오랜 시간 지속된 사역지의 환경 탓이 컸다. 휠체어에 의지해 앉아있기도 하지만 고작 30분 정도다. 하지만 ‘시스터 킴’으로 30여 년을 하나님 앞에 ‘예스’의 삶을 살아온 딸은 병석에 누워서도,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너 선교사 할래? 라고 물으신다면?”이라는 질문에 같은 대답을 전했다. 미소 지으며 기꺼이 “예스!”라고. CGNTV의 또 한 명의 친구가 된 김 선교사. 그녀의 이야기는 CGNTV를 통해 또 다시 많은 이들에게 소개됐다.

CGNTV 국내뉴스



100%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순수복음방송 CGNTV

CGNTV 정기후원행사가 지난 10월 6일 '함께!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열렸다. 영상을 통해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나누고 이에 공감한 성도들이 동참했다. CGNTV는 미디어 선교사로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빙고, 양재 캠퍼스에서는 흑백 사진관을 운영해 추억을 선물했다. 정기후원행사 결과 CGNTV 정기후원자는 3만 5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어서 최경주 프로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후원골프대회와,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온 콘서트도 이어졌다. 한편 프리미엄 캐시미어 니트 전문 브랜드 TFTism에서는 CGNTV 후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 까지 후원바자회를 진행했다. 후원금은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살리는 복음 콘텐츠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CGNTV 콘텐츠, ICVM 크라운 어워드 4개 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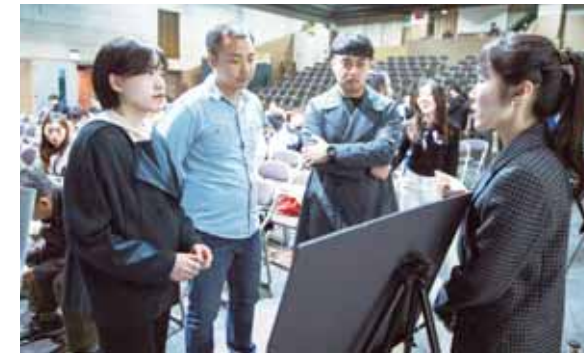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고고송>과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이 지난 11월 16일 (미국 현지시간) 열린 'ICVM 크라운 어워드'에서 4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CVM(International Christian Visual Media) 크라운 어워드는 국제 기독교 콘텐츠 시상식으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뽑아 시상한다. 총 18개 부문의 시상이 이루어진 이번 시상식에서 CGNTV 드라마 <고고송>은 'Best International Films(최고해외영화상)' 부문, 금상(1위), 배우 윤유선이 'Best Supporting Actress(여우조연상)'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Best Documentary over \$50,000(제작비 5만 불 이상 다큐멘터리)' 동상, 'Best Series(베스트 시리즈)'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CGNTV는 지난 2017년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2018년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 이어 3년 연속 ICVM 크라운 어워드 수상에 성공하면서 콘텐츠의 완성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CGNTV-TGC코리아 MOU 체결

지난 11월 13일, CGNTV와 TGC코리아가 콘텐츠 공급과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TGC코리아 박태양 대표는 CGNTV와의 상호 협력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TGC코리아는 2005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독교 연합기구인 TGC(The Gospel Coalition)의 한국지부로 지난해 설립됐다. CGNTV와 TGC코리아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시작했으며, 공동기획한 프로그램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를 통해 복음주의 세계관을 널리 공유하고 있다.



CGNTV 사내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

제1회 CGNTV 사내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가 10월 1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열렸다. CGNTV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는 CGNTV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장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한 뒤, 지지하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선 발표 여섯 개 팀이 조직,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 중 "CGNTV 콘텐츠 퀄리티 향상을 위한 제안"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아 1등을 차지했다.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더 많은 시청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CGNTV 콘텐츠, 5년 연속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수상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2019 한국기독교언론대상에서 두 편의 CGNTV 다큐멘터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CGNTV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연출 홍주연, 윤은영)이 '해외선교' 부문 최우수상을, 3·1운동 1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연출 유진주)이 '기독교문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CGNTV 콘텐츠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한국기독교언론대상 수상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다큐멘터리 <MK의 고백>이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KNOCK 미니휴먼다큐> 시리즈(기독교문화 부문), 2017년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선교 부문 최우수상), KNOCK 미니휴먼다큐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나눔기부 부문 우수상), 2018년 KNOCK 미니휴먼다큐 <수원역 브이로그>(나눔기부 부문 우수상), 다큐멘터리 <독일 통일, 기도에서 기적으로>(기독교문화 부문 우수상) 등 잇달아 수상작을 배출했다.



CGNTV 해외뉴스

일본 CGNTV



일본지사장 이·취임식

일본 CGNTV는 지난 11월 18일 일본 CGNTV 스튜디오에서 일본지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개국부터 일본 CGNTV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창호 국장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사장직을 이임하고, 본사 박두진 국장이 새롭게 부임했다. 이번 이취임식 자리에는 CGNTV 이사장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와 CGNTV 이용경 대표가 함께했다. 일본 교계 지도자 및 후원자들도 참석해 전임, 신임 두 지사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특집다큐 <38도 십자가의 사랑> 제작

일본 CGNTV는 개국 13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38도 십자가의 사랑>을 제작했다. 2020년 동경 올림픽에 발맞춰 기획된 <38도 십자가의 사랑>은 스포츠 선교 투어를 펼치고 있는 남 캘리포니아 시호스(Sea Horse) 축구팀을 조명했다. 시호스 팀은 1996년부터 매년 여름, 축구 선교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폴 기지(Paul Gizzi)감독, 요코타 마사유키 코치, 츠타타 사토키 목사 등이 축구를 통해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스포츠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 CGNTV <CGN 스페셜 - 임직자스쿨> 풀러신학교와 공동제작

미주 CGNTV와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가 임직자 교육을 위한 <CGN스페셜-임직자스쿨>을 공동 제작했다. 조은아, 신웅길 등 8명의 풀러신학교 교수와 송병주, 정창철 등 7명의 미주 현지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성경, 예배, 영성, 리더십(소그룹), 선교, 상담 등 기본적인 신학 내용을 담았다. 미주 CGNTV는 프로그램이 미주한인교회 및 각 선교지 교회에 유익한 영상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CGNTV 임직자스쿨'로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CGNTV_ '드림온 콘서트 2019'

인도네시아 CGNTV 후원을 위한 '드림온 콘서트'가 지난 11월 3일(주일)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됐다. 한인 선교사 및 현지인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CGNTV를 통한 인도네시아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나누고 동역의 뜻을 다졌다. MC 예미마의 진행으로 현지인 동역자 리사 자매, 시가르 목사, 물리야디 목사의 토크 시간이 마련돼 CGNTV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 노아 워싱턴스, 익투스 콰이어, 장로부부합창단 등이 생동감 있는 공연으로 자리를 빛냈다.



대만 CGNTV_맞춤형 미디어 아카데미

대만 CGNTV가 미디어에 관한 현지 교회의 요청을 받아 보다 실제적인 맞춤형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한 달에 2번씩 핑전침례교회를 찾아가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핑전침례교회에서는 '청년예배와 주일예배 라이브중계'에 대한 교육을 요청해, CGNTV는 이를 직접 실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만 CGNTV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지 교회 미디어 사역자를 양성하고, 교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CGNTV_다큐 <브래들리> 제작

태국 CGNTV가 특집 다큐멘터리 <브래들리>를 제작했다. 브래들리 선교사가 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이를 통한 태국 크리스천의 역사를 선보인다. 브래들리 선교사는 184년 전, 태국에 들어와 첫 번째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신문도 처음 발행하는 등 태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헌신했다. 태국 CGNTV는 이를 통해 태국 크리스천과 교회들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1월 13일 1편을 시작으로 총 4편이 방송된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05:4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1:10 붓소헌성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말씀]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08:2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11: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08: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아침운동) 09: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동래중앙교회- 11: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7:4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11: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수영로교회- 11:2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08:20 나침반 플러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아침운동) 09: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09:40 공동체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 10:20 이재훈 목사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1: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1: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6:30 켈센 프랭클린의 부흥 1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7: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교회) 16:1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40 [말씀]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17:20 스티븐 엄의 하나님의 사람 17:5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00 [말씀] 박성근 목사(남기주새누리교회) 13: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4:40 저스트 텐 미닛 <위스킹> 14:50 [말씀] 박신웅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1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6:4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7:20 크레이그 그로셀의 관계의 목표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4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1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6:4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17:20 케빈 드영의 감사하는 교회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0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40 저스트 텐 미닛 <제이어스>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회) 16:40 [말씀] 최경욱 목사 (또감사선교회) 17:20 카일 아이들먼의 예수님의 관점 17:5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00 [말씀] 마크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13:4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4:40 저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 썬스티원> 14:5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5:30 [세미나] 신성진 대표의 이야기 속 돈 이야기 16: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17:5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2: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50 내셔널 바이블 비 게임쇼 13:30 예수님이 좋아요 13:5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4: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5: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16: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8: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1:00 KNOCK 21:1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분방) 23:00 내셔널 바이블 비 게임쇼	18:2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18:3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50 [세미나] 선교하시는 하나님 21:0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21:40 저스트 텐 미닛 <제이어스>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칩 잉그램의 나는 왜 믿는가 22: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0:50 [세미나] 이연길 목사의 내려티브로 풀어나가는 기독교 기본진리	18:3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1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21:00 [말씀] 김형익 목사(벧살롬교회) 21:40 저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 썬스티원>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켈센 프랭클린의 부흥 22: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10 [세미나] 최은영 교수의 성장 00: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18:3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1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9:50 [세미나] 자녀 마음을 읽어 주세요 21: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21: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데이비드 플렛의 시크릿 처치 22:3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3:10 [세미나] 이상익 교수의 꽃보다 아름다운 목회상담 이야기	18:30 [말씀] 김형익 목사(벧살롬교회) 19:1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9:50 [세미나]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21:40 저스트 텐 미닛 <위스킹>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22: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8:3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1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9:50 [세미나] 2019 TGC 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21:40 붓소헌성 (저녁운동)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R.T. 캔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22: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10 CGN 비전특강	18:0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18: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9:40 미니콘서트 험2 19:5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0: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1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1:4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예센스 <구약 편> 00:50 [세미나] 2019 목회사관학교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



주인공이시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다.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설교를 했는데, 몇 주 들던 한 연세 많은 장로님이 목사에게 묻더라.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않은 설교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지식은 출지언정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갈수록 예수님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같다. 요즘 미국에서는 ‘Christmas’라는 말 대신에 ‘Happy Holidays’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한껏 즐기고 놀 휴일이 필요할 뿐이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다. 제이디스(Jadis)라는 하얀 마녀가 마법을 사용해서 나니아 왕국을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동토의 나라로 만든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계속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사실이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져 있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추운 겨울도 봄이 올 것을 소망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 가장 큰 고통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곧 성탄절이 온다.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성탄목)가 보인다. 원래 성탄목으로 전나무를 세웠는데, 이것은 에덴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한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성탄목에 매달아 놓은 사과와 선악과를 상징하여 인간의 죄악을 기억나게 했다. 종이로 만든 장미꽃도 걸어놓았는데, 이것은 이사야 11:1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밖에 과자(빵), 촛불도 생명의 양식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성탄목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데없고 12월의 알팍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장식뿐이다. 성탄목을 보면 주인공이 사라진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CGNTV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여야 한다.

안양제일교회 최원준 담임목사

필자는 TV를 제법 보는 편이다. 재미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급적 보려고 한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참 재미있게, 가슴 찡하게 봤다. 따뜻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기까지 한 드라마였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의 메시지까지 전해주기도 했다. <놀면 뭐 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드림 연주자로, 트로트 신인 가수로 변신한 유재석의 맹활약을 보는 재미가 솔솔했다. 수요저녁예배 마치고 오면 날 기다리고 있는 <차이나는 클라스>도 내가 즐겨 보는 방송이다. 다방면의 전문가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알려주는 지식은 유익하다. 나중에 책으로 편집되어 출판되었는데, 그 책도 구입하여 봤다. 차를 운전할 때는 모바일로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와 설교를 자주 듣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재미와 지식을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CGNTV는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주어야 할까? 필자는 ‘예수’라고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인이듯이 예수님은 CGNTV의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중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중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강종도, 고미애, 고현준, 광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선래, 김성규,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희,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준홍,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경화,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재두, 박지수, 박진두,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배병태, 백종신,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준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안해욱,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도훈, 오 명, 오범규, 오이식, 유병진, 유영섭, 유의준, 유이상,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바음, 이서정, 이석일, 이영태, 이영희, 이용만, 이웅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경, 이희연, 임동욱, 임상범,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심, 정상기, 정윤희,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영진, 주영재, 지성한, 진심하,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정수, 최훈학,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황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159번 (프리미엄형 상품)
- ▶ ch.550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ch.271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팟빵)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CGNTV 웹페이지

CGNTV 웹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CGNTV 웹페이지 : www.cgntv.net

CGNTV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CGNTV 소셜&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CGNTV', 'CGNTV SOON', 'KNOCK노크', '붓소헨섭' 검색
- 'CGNTV', 'KNOCK노크' 검색